

사랑으로 깊으려다

김창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3동)

나는 어릴 적부터 무척 불행했다. 어릴 때는 자신이 불행한지 행복한지 판단을 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불행했다. 그리고 건강도 안 좋았다.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나오는데 아픈것은 대부분 정신건강이 제대로 챙겨지지 않았다는 결과이니까.

특히 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제일 지겨웠다. 나를 사랑한 것 같지만 지금 판단해보면 대부분 어머니 자신을 사랑한 결과였다. 나는 어릴 때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공부를 강요했다. 성적이 좋으면 어머니가 좋아하니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공부를 했다. 강요에 의해 공부를 하다 보니 약간의 우울증도 겪었다.

외톨이로 그리고 약간의 우울증을 겪으면서도 나는 경북대를 졸업한 후 매일신문 29기 수습기자로 발탁됐고 다시 중앙일보에 24기 대우로 특채됐다. 남이 볼 때는 순조로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순탄한 인생길이다. 그러나 정녕 나는 불행했다.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감이 없었다.

중앙일보 자매지 중앙경제 교열부에 있으면서 신경정신과 상담치료를 1년 가까이 받았다. 50분 상담에 5만원을 주고 1주일에 한 번 치료를 받았는데 비싼 값이 있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신분석을 받고 무엇이 결핍되었나,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했다.

당시 담당의사에게서 "당신같은 스타일이 하고 1순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해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한 감이 없었고 그렇게 쉽게 해고당하리라고는 상상이 안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2월 명예퇴직을 강요당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했기에 회사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이 저항을 많이 했다. 도대체 나보다 게으른 사람들은 뇌두고 왜 착실한 나를 자른단 말인가! 정말 천부담만부담했다.

그렇게 회사에서 해고되고 난 후 가장 먼저 한 게 있다. 바로 발표력 기르기로. 당시 무료직업교육을 받으면서 남 앞에서 자기 주장을 확실히 밝히는 연습을 나이 40에 시작한 것이다. 1년 가까운 취재기자 시절 온갖 사람을 다 만나고 추궁(?)하고 했지만 아직도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이다. 여러 학원에서 사람사귀기와 발표력 기르기를 배웠고 제과제빵학원도 다녔다. 거기서 기술을 배워 취업하겠다는 생각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 "그때 이러 이러한 폭력으로 나는 그동안 마음의 고통을 당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오래된 기억이라 해도 대부분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면 내 속의 화는 그것으로 사셔져 갔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이런 식으로 풀려다 보니 끝이 없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가 대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것이 내 속의 화를 증폭시켰다. 아무리 화를 풀려고 해도 풀이지 않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잘 수 없고 식구들과 얼굴 마주 보기도 힘들었다. 내부의

명퇴 후 어머니와 세상에 대해 원망

모든 갈등 마음속 화에 있음을 알아

큰스님들에 받은 가르침 사회회원 다짐

은 추후도 없었다. 알뜰결에 탄 자격증으로 기존의 가게들과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노레방을 2년간 운영해왔으나 이것도 실패. 그러다 스포츠투메이에 교열 기자로 들어갔다. 물론 내적 갈등은 계속됐다. 내적인 평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 안창소년수련원에서 3차 4일 수행도 참가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다. 탁났한 스님의 <화>라는 책을 대어섯 번 읽고 '바로 이것이다' 하고 무릎을 탁 쳤다. 바로 책 표지에 써있는 '화가 풀리면 인생이 풀린다'는 말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 가슴 속 30~40년 된 갈등의 앙금을 찾아 초등학교 동창까지 찾아 나섰다.

화 에너지가 너무 강렬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다섯 식구의 생계를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우선 내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다급함이 앞서 퇴사를 하지 않고는 배겨낼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도 순하고 착했던 내가 왜 이렇게 지옥불 한가운데를 걷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무슨 업이 지중하여 이렇게 순탄한 대로를 두고 스스로 지옥불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원망도 많이 했다.

모든 것이 어머니의 악다구니 탓이었다. 어머니는 당신의 불행은 왜 아이들에게 전가하여 그렇게 아이들을 들볶고 괴롭혔는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여파로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고 사람의 기본 인성과 감성이 형성돼 있지



그림 · 문병성

않고 오히려 많이 파괴되다 보니 사람들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부모님 극복'이다. 남의 잘못은 쉽게 극복되는데 부모님의 잘못은 연약한 자식으로서서는 정말 어떻게 해보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나만 해도 처음엔 호도한담이고 어머니의 악다구니를 듣고 있다가, 듣는 내 영혼이 고통스러우면 자리를 피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대변에 '불효자'라고 징벌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당신의 불행에 대해서 내가 자리를 피한다고 불효자라고 곤장을 쳐 버리는 어머니가 너무 딱했다. 나처럼, 장남과 장녀가 우울증이나 가정의 어두운 분위기에 희생당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

나는 이것이 바로 전생의 업이 아닐까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혹독하게 시달릴 것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수억급 과거전생이다. 바로 이 불교의 핵심사상인 전생 업을 동원하지 않으면 나의 불행은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바로 이 업을 풀기 위해서

경남 산청 해동선원의 성수 큰스님과 강원도 원주 성불원의 현각 스님 그리고 탁났한 스님의 책과 정묵 스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다.

이분들의 자비한 가르침에 의해 나의 어두웠던 과거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로지 불행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머니의 바로 그 악다구니가 오히려 내 인생의 폭을 넓히게 해 주었다. 전생에 대한 개념도 잡고 또 인간이 재주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빠르다고 좋은 것

만은 아니라는 교훈도 얻었다.

그리고 지금 두 분의 불빛이 나를 이끈다. 하나는 성수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는 것도 해탈이다."

두 번째는 온몸이 부서져라 방승치료를 하고 계시는 정묵 스님이다.

이 두 분의 뼈저린 사랑에 반드시 나의 어두움을 날랏아 밝혀서 나보다 더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덮어주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받은 사랑에 반드시 이자를 붙여 이 사회에 환원하리라 다짐하며 글을 마칠까 한다.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갈등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이시린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중,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언어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합,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2006년 신개발 **후물체실사**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가로 28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국내(한국산)

- 특 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멍 및 헤드라임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용수, 佛手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열철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직까지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물게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히** 불 전 합

움직이거나
털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 필름난방" **특히**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난방을 생각하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시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주세요.

구 분	필름난방	실아전적	도시가스	전기난방	LPG	보일러등유
소비자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영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설치하면 좋은곳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영관 비더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과일의 왕 **두리안**

동안거를 맞이하여
올해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어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선방 공양 하시는 스님께서는
가격을 할인 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하십시오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도 금병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후레쉬망고도 11월 30일부터 출하합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규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